

구인두암의 수술적 치료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학교실
최은창 · 이세영 · 송미현 · 박태준

목 적 : 수술적 치료에 있어 접근이 어렵고 술 후 여러 가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구인두암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병합 요법에 대하여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구인두암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저자들이 경험한 구인두암의 수술적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2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구인두암으로 수술 받았던 143예 중 평평상피세포암 종이 아닌 9예와 구제 수술이었던 20예를 제외한 수술을 초치료로 받았던 연속적인 114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이 중 남자가 100명, 여자가 14명이었으며 나이는 32세에서 78세로 평균 57세였다. 추적관찰기간은 6개월에서 147개월로 평균기간 44개월이었다. 병기는 2002년 AJCC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치료방법은 수술적 치료만 한 경우가 28예였고 수술적 치료와 술후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가 86예였다. 재진방법, 5년 생존율, 재발율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Kaplan-Meier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 원발부위는 편도가 76예, 설근부가 26예, 연구 개가 17예, 그리고 후인두벽이 3예이었다. T1이 36예, T2가 48예, T3가 11예, T4가 19예였으며 N0가 32예, N1이 14예, N2가 65예, N3가 3예로 N(+)가 72%였다. 술후 재건술은 114예 중 77예인 67.5%에서 시행하였는데 요전 완 유리피판이 52예, 대흉근 근피판이 18예, 외대퇴 유리피판이 4예, 복직근 유리피판이 2예, 비골 유리피판이 1예였다. 환자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무병생존이 78예, 재발로 인한 사망이 15예,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5예, 수술로 인한 사망이 3예,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3예로 누적 생존율이 64.6%였다. 재발은 114명 중 15예(13%)에서 나타났으며 재발부위는 원발 병소가 2예, 경부 재발이 5예, 원발 부위와 경부가 동시에 재발한 경우가 1예, 그리고 원격 전이가 7예 있었다.

결 론 : 구인두암의 치료에 있어 수술적 치료는 우수한 치료성적 및 생존율을 보여 향후 구인두암의 일차적 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